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 연구
-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

박미정, 한소정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

주 제 어

성인기 자살 자녀, 노년기 어머니, 현상학적 사례연구, 생활세계

요 약 문

본 연구는 자살유가족의 자살예방과 그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성인기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를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방법으로 접근하였다. Van-Manen의 분석 방법에 따라 생활세계 실존체의 네 차원인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들을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생활세계의 시간성은 '멈춰버린 인생', 공간성은 '사라짐', 신체성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관계성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네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주제는 '암흑속에서의 빛 줄기'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접 수 일 : 2018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20일



생명연구 제48집 2018년 5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8, May 2018, pp. 165~206
<https://doi.org/10.17924/solc.2018.48.165>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 연구

-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

박미정*
성균관대학교

한소정**
성균관대학교

I. 서론

자살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한 명이 자살하게 되면 5~10명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3여명이 자살을 하고, 자살유가족은 매년 7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¹⁾ 가까운 사람의 자살은 개인의 자살생각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밀하고 강한 사회적 관계인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자살유가

* 제1저자 ** 교신저자

1) 통계청, 2014.

죽은 자살-공동피해자²⁾라고 할 만큼 자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타격이 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후속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³⁾ 이 중에서도 특히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자살 후 일 년 이내 자살 시도 가능성이 가장 높고⁴⁾, 남은 자식도 자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남겨진 자녀를 과잉보호하기도 하고, 남겨진 아이로 하여금 죽은 아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가 하면⁵⁾, 자녀 자살사건 후 35년까지도 심각한 우울증과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우 자녀 자살에 대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로서의 자격미달이었다는 자기비난 때문에 남은 생을 견디기 어려워 하며, 자살유혹, 우울, PTSD등의 애도반응과 함께 자녀 자살을 집안체면 깎는 부끄러운 수치로 여기기도 한다.⁶⁾ 자녀 자

2) 자살 사망자 수는 2012년 14,160명에서 2013년 14,427명으로 전년대비 267명 (1.9%)이 증가하여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로 사망하였음(통계청, 2014)

3) Henry J. Carson, "Dyads of Father and Son Suicide Separated by Time and Circumstances",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Vol. 31, No. 1, 2010.; Ann M. Mitchell, Teresa J. Sakraida, Yookyung Kim, Leann Bullian, & Laurel Chiappetta,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23, No. 1, 2009, p. 2-10.

4) Catherine H. Rogers, Frank J Floyd, Marsha Mailick Seltzer, Jan Greenberg, & Jinkuk Hong, "Long-Term Effects of the Death of Child on Parents' Adjustment in Mid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2, No. 2, 2008, p. 203.; Alex E. Crosby & Jeffrey J. Sacks,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United Stat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2, No. 3, 2002, 321-328.

5) Kay Redfied Jamison, 이문희 옮김, 『자살의 이해』, 뿌리와 이파리, 2004.; J. William Worden, 이범수 옮김,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해조음, 2009. p. 262

6) 윤명숙 · 김가득,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복지

살 후 부모의 상태는 “넋이 나감, 참척죄인, 유형의 땅과 정지된 시간, 고통을 위로받고 싶음, 반쯤 께맨 상처로 살아지는 날들’ 을 보낸다고 보고되었다.⁷⁾ 자녀 자살로 입은 상실감은 배우자 상실의 고통보다 더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며⁸⁾ 그 어떤 고통과 충격보다도 강한 경험이어서, 사고사 보다 비극성이 심하며 애도반응과 과정 역시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에게 자녀의 자살이 전 생애 과정에 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 주는 사건이므로 자살유가족에 대한 개입의 시급함을 알렸고, 이를 기반으로 자살유가족 사업에 대한 사회적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부모의 생활세계의 변화와 이에 적절한 사회적 방안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로 자녀를 상실한 부모는 1년 이내에 자살로 자녀를 뒤따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김가득¹⁰⁾의 연구와 아들이 자

학회』, Vol. 29, 2010.

7) 김가득,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4권 4호, 2012, 23쪽.

8) 이근무 · 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호, 2010.; Wolfgang Stroebe, & Henk Schut, “Risk Factor in Bereavement Outcome: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Review”, In Strobe. M, S., R. O., Hansson, W, Strobe., and H, Schut (Eds), *Handbook of Research: Consequence,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9) Steven E. Bailey, Michael J. Kral & Katherine Dunham, “Survivors of Suicide Do Grieve Differently: Empirical Support for a Common Sense Proposi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Vol. 29, No. 3, 1999.; John L. McIntosh & Adina Wroblewski, “Grief Reactions among Suicide Survivors: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Relationships” *Death Studies*. Vol. 12, No. 1, 1988, p. 21-39.

10) 김가득, 2012.

살로 떠난 후 아버지가 일 년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Carson의 연구는 자살로 자녀를 상실한 부모 중 어머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거라 할 수 있다¹¹⁾. 부모와 자녀,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는 탯줄을 통한 긴밀한 관계임과 동시에 자녀의 성장 과정 그 자체가 어머니의 삶의 과정이자 궤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에게 자녀 자살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과정과 역사 등 모든 것의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가 자녀 자살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경험들을 통해 자살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물음은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는 어떠한가?’ 이다.

II. 자살유가족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살 유가족’ 혹은 ‘자살 생존자’ 라고 부른다.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적 죽음을 애도할 때 느끼는 감정의 몇 배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더욱

11) Henry J. Carson, 2010.

고통스러운 것 자살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다¹²⁾. 결국 진정한 희생자는 자살한 사람이 아닌 그의 유가족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의미에서 ‘자살 생존자’라고 불리는 것이다.¹³⁾

죽음으로 인한 낙인(stigma)은 자살 유가족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감정으로¹⁴⁾, 자살 유가족은 일반 죽음 유가족보다 높은 우울, 무망감,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¹⁵⁾, 자살자를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발견 당시 사체의 영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한다¹⁶⁾. 또한 자살유가족은 혼란감과 비탄감을 해소하지 못해 위험한 수준의 자살사고를 지속하기도 하며¹⁷⁾,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가족의 자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서 후속 자살로 연결될 수 있다¹⁸⁾. 그 중에서도 자녀 자살 유가족들은

12) Beverly Cobain & Jean Larch, 이해선·육성필·김신향 옮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시그마프레스, 2012, p. 28-32

13)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 2013.

14) Jacqueline G. Cvinar,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 41, No. 1, 2005.; John Peters, "Bereavement after a Suicide a Survivor's Perspective", *Spirituality and Earth International*, Vol. 7, 2006.

15) 박봉길·전석균,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권, 2006.; 김현순·김병석,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권 1호, 2007.; 최연희·김수현, 「재가 노인의 우울에 다른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8권 2호, 2008.

16)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2013.

17) Amy E. Latham & Holly G. Prigerson, "Suicidality and Bereavement: complicated Grief as a Psychiatric Disorder Presenting Greatest Risk for suicidal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 No. 4, 2004.

18) Carson and Henry, J. 2010.; Ann M. Mitchell, Teresa J. Sakranda, Yookyung Kim, Leann Bullian, & Laurel Chiappetta, 2009.

배우자 자살 유가족보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⁹⁾.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보다 앞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식을 천하에 불효자로 취급하고 언급조차 꺼렸으며 그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로 인해 자살자 부모는 다른 어떤 죽음보다 큰 충격과 슬픔 앞에서 마음대로 울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우리사회 가족문화는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돼 있어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시 되는 가운데²⁰⁾,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정, 분노, 적개심 등과 같은 모든 감정이 억제되고 통제되며 다스려 삼켜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졌다.²¹⁾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사회는 자살유가족들의 어려움을 지극히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하고 자살자가 있는 집안자체를 문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살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을 은폐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고, 이는 마치 사회적 규범처럼 고착되어 버렸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자녀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 자살유가족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자살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적응에 대한 연구²²⁾, 자살자 가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²³⁾, 자살

19) Mark D. Reed & Jason Y. Greenwald, "Survivor Victim Status: Attachment and Sudden Death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1, 1991.

20) 송성자,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법문사, 2001, 440쪽.

21) 김열규, 『한국인의 화』, 휴머니스트, 2004, 90쪽.

22)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권 1호, 2002.; 박지영,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권, 2010.

23) 이근무·김진숙, 2010.

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²⁴⁾, 남편을 자살로 잃은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²⁵⁾와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경험에 대한 연구²⁶⁾등이 간간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살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이에 따라 자살유가족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하지만 자녀 자살 부모라는 사회적 시선은 자살유가족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회복 등에 이르기까지의 지나한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는 자살유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한 예방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 자녀 자살 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 생활세계의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4) 박지영, 2010.

25) 김버리·신현균·한규석, 「남편을 자살로 잃은 여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 18권 1호, 2013.

26) 김가득, 2012.; 윤명숙·김가득, 2010.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사례연구 접근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성인기 자녀를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 경험에 접근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는 개인의 주관적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규명하려는 Van Manen²⁷⁾의 연구방법과 하나(또는 여러 개)의 사례를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고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분야를 심층 분석하는 Creswell의 사례연구방법²⁸⁾을 결합한 것이다.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의미화 되고 구성되어 가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의 본질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현상학적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자녀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가 겪는 슬픔과 고통을 단기간에 걸친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연구자의 해석보다는 당사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분 참여와 관찰 및 심층면담이 가능했던 단일사례를 선택하였다.

27) Max van Manen, *Researching Live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The Althouse Press. 1990.

28)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1998.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 김○○씨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해 줄 것을 참여자에게 요청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일대일 심층면접 또는 부분참여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평균 5회, 부분 참여는 3회 시간은 1회당 60~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장소는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부분참여는 참여자가 일하는 발 또는 입원해 있는 병원병실에서 이루어졌다.

3.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을 위한 노력

연구자들은 인터뷰 진행에 앞서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목적 및 취지, 개략적인 회수 및 소요시간, 면접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연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과정 중이라도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로 인해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면담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사항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비밀로 처리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참여자가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고통을 호소 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신속하게 의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한 후 인터뷰에 임했으며,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필사한 원자료와 연구메모, 현장노트 등의 내용을 검토해가면서 Van-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²⁹⁾과 하나(또는 여러 개)의 사례를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고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분야를 심층 분석하는 사례연구 방법³⁰⁾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성인기 자녀 자살 후 노년기 어머니의 일상생활 경험이 어떻게 변화·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성인기 자녀 자살 후 노년기 어머니가 겪는 상실과 슬픔은 단편적인 예술·문학으로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세계로 침묵의 고통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원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개념화하고, 이를 실존체의 네 차원인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으로 나누어 현상학적 해석과 성찰을 통해 주제를 구성하였다.

29) Max van Manen, 1990.

30) John W. Creswell, 1998.

IV. 분석결과

1. 사례진술

참여자는 2014년 면접당시 68세로 1947년 ○○도 ○○에서 2남6녀의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1968년 20살 되던 해 인근마을 청년과 혼례식을 치렀다. 결혼 후 1968년부터 1974년까지 2년 터울로 딸 넷을 낳았다. 1976년 다섯째로 큰아들을 낳았고, 6년 후 여섯째로 둘째아들을 낳았다. 6남매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딸들과 큰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다. 둘째 아들은 고향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가는 것을 계속 기피하다가 20대 후반 공익요원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던 중 근무 다녀오겠다고 나갔는데 며칠째 안 들어왔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들이 죽었으니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다. 아들은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고, “이런 선택을 해서 미안하다. 시신은 화장해서 고향집 바닷가에 뿌려 달라”는 유서가 있었다.

2. 생활세계에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

본 절에서는 참여자가 자살한 아들을 발견한 이후부터 변화된 삶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Van-Manen 현상학적 연구방법³¹⁾ 중 실존체의 네 차원을 분석하였다. 아들의 자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즉 아들의 자살 확인에서부터 면담 종료 시점까지 아들 자살 이후 참여자의 일상 생활세계를 포괄하는

31) Max van Manen, 1990.

구성 의미와 현상 및 경험 구조를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차원에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들을 분석한 후 각각의 차원을 포괄하는 주제어를 제시하였다.

1) 체험된 시간성- “그날로 멈춰버린 인생”

시간성(lived time)은 시계가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시간이 아닌 아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시점에서부터 3년이 지난시점까지 참여자가 체험하고 인식한 주관적 시간이다.

<표1> 체험한 시간성

시간성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그날로 멈춰버린 인생	깨어서 꾸는 악몽	꾸어서는 안 되는 악몽, 움직이지 못함, 망연자실
	그때 거기에 머물러 버린 나날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아들, 그때에 있는 아들, 오지 않는 아들

(1) 깨어서 꾸는 악몽

‘깨어서 꾸는 악몽’은 참여자가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면접종료 시점까지이다. 아들의 자살은 깨어서 꾸는 악몽 그 자체였으며, 매 순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 자리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아무런 반응 없음에 망연자실하면서 주저앉기도 했다.

“내 새끼가 맞냐고 물어 본다, 겉보기에는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새끼가 맞습디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이것이 꿈인가 싶고, 꿈이야 하고 소리치고 벌떡 일어났으

면 했는디, 눈앞에서 이런 일이.....,

(2) 그때 거기에 머물러 버린 나날

‘그때 거기에 머물러 버린 나날’은 아들의 죽음 후 면담 종료시점까지 참여자가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시간의 체험이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염없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다. 아들의 죽음 시점에서 모든 흐름이 멈춰버린 어머니의 일상은 지난 날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한 내지는 왔던 시점만 기억했다. 통상적인 흐름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날’만 기억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한 주말(토요일)이나 퇴근시간 등만 기다리면서 시간의 흐름, 변화도 느끼지 못하였고, 모든 일상이 아들과 같이 했던 그때에 멈춰 있었다. 아들이 존재하던 그 시간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다려도 오지 못하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퇴근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고, 주말이면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러 올 것을 믿고 기다렸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체구의 청년의 뒤를 하염없이 따라가다 길을 잃기도 하였다.

“내 아들이라, 안 죽었어라, 밭에서 일하면 ‘엄마’ 내가 이번 쉬는 날 내려가서 할라요, 혼자 하지 마시오 그러디다. 꼭 올 것ियो, 내가 병원에 있으면 퇴근하고 켈 먼저와라, ‘엄마’ 하고 금방 올 것ियो.

‘깨어서 꾸는 악몽’과 ‘그때 거기에 머물러 버린 나날’을 포괄하는 주제어는 ‘그날로 멈춰버린 인생’이었다. 아들 죽음 후 참여자는 사람살이의 기본 감정인 희(喜)·노(怒)·애

(哀)·락(樂), 먹고, 자고, 쉬는 행위조차도 거부하거나 일정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된 일상적 규칙성도 파괴되었다. 아들 사망 후 멈춰버린 나날은 통상적인 시간의 멈춤이 아닌 일상생활의 멈춤, 즉 사람살이의 흐름의 멈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들을 임신했을 때 느꼈던 태동까지도 상세히 이야기 하면서 정작 아들의 죽음 이후 진행된 일들은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다. 오직 아들과 함께했던 그때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오지 못하는 아들을 ‘올 것어요’ 만 반복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새끼가 내 앞에 있는데, 어째 눈에 안 보일꺼라, 만져볼라고 손을 내밀면 없어져 부러라, 분명히 보였는데, 분명히 들렸는데”

위와 같은 참여자의 구술 회고와 행동을 연구자들은 시간성으로 보고 시간성을 “그날로 멈춰버린 인생”으로 주제화하였다. 이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깨어서 꾸는 악몽’과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나날’로 해석하였다. ‘깨어서 꾸는 악몽’의 드러난 주제는 ‘움직이지 못함, 망연자실, 나가지 못함; 이며, ‘그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나날’의 드러난 주제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아들, 그때에 있는 아들, 오지 못하는 아들’로 범주화 하였다.

참여자에게 아들의 자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고, 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악몽이자 사건으로 ‘깨어서 꾸는 악몽’이었다. 아들의 자살 후부터 어머니의 사람살이 자체는 없어져버렸고, 규칙적이고 지루한 듯 앞으로 나가던 소소한

일상들이 정지해버렸다.

2) 체험된 공간성- “사라짐”

공간성(Lived space)은 높이, 깊이 등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가 아들 자살 후 참여자가 내부에서 느끼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아들 자살 후 어머니의 공간성은 “사라짐”이었다. 자살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 자살 후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위로받을 곳도 없었다. 일상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간의 규칙성과 변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처(居處)도 없었으며,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 또한 사라져버렸다.

〈표2〉 체험한 공간성

공간성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사라짐	갈 곳 없음	침묵해야만 하는 죄인, 마음 놓고 울 곳도 없음
	경계 무너짐	밤 낮 없음, 이승과 저승 없음 너 없고 나없음, 일터와 쉼터 없음

(1) 갈 곳 없음

‘갈 곳 없음’은 참여자가 체험하는 공간성의 본질적 주제 중 하나이다.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을 포괄하는 ‘갈 곳 없음’은 아들 죽음의 순간에서부터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에 갈 곳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사라짐” 그 자체였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호상(好喪)이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망자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살자 부모라는 생각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부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다.

“친구들도 오고 형제지간들도 온디, 내 막둥이는 어제 못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막둥이 봤냐고 물어봐야 쓰졌는디 입이 안 떨어집디다, 누가 나를 보고 새끼 죽고 미쳤다고 할까봐서,
“아무리 봐도 내 새끼는 안 옵디다. 새끼는 어디 있을까? 말 좀 해보라고 해도 못하고, 우리 막둥이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말도 안 해주고, 나도 할 말이 없고, 진짜 왜 죽었을까라.....”

참여자는 어느 누구하고도 아들의 생전의 모습과 추억을 나누지 못했다. 장례식 당일에는 체면과 부끄러움 때문에 슬픔과 비통함을 애써 감추고 의연하게 손님들 맞고 보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죽기 전 근황을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도 못했다. 자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평상시 생각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다.

“내 새끼가 없는데 어미가 살았다고 할 수 없제라,중한 사람이 없어져 부렸는디 무엇이 중 하겠소 참말로 기특한 자식인디, 보는 것만으로도 오진 자식, 내가 살았다 할 수 없고, 아들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2) 경계 무너짐

경계 무너짐은 아들 죽음 후 공간에서의 일상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되는 경계와 항상성, 규칙성 등이 아들

죽음 후 모두 무너져버렸다. 밤과 낮이 없었기에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지 않았고, 살아 있어도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없었다. 의·식·주를 위한 관례적 공간조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참여자의 녀두리를 실현하듯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물리적, 심리적)도 없었고, 이미 주어진 공간 또한 갈 곳이 없었다. 너(아들)없음은 나(참여자)없음으로 동일시되어 어떤 경계도 없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자체로서 사라짐이 반복되었다. 살아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지속·변화를 위한 물리적 공간도 떠난 아들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해원(解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자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덤도 없고, 유골도 없고, 마음에도 묻을 곳이 사라져버렸다. 하염없이 북망산천만 바라보면서 허허로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오로지,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유일한 공간이었다.

“금쪽같은 새끼가 없는데, 밥이 무슨 소용 있고, 새끼가 찬 바다에서 떠도는데 방이 무슨 소용 있잖아요.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지고, 꿈에라도 보일까 싶어 아들 방에 있다 잠깐 자고, 그렇게라도 나는 자는디 내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 자고, 이대로 죽으면 아들한테 갈 것인디, 나는 안 데려가고.....,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요.

보통, 부모 앞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식의 장례식은 아주 간소하게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자는 이러한 관행 때문에 장례식 이후 더 고통스러워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한번 가는디, 어메가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면

서 자살했다고 울도 못한 것이 시상 위치께, 두고 두고 가슴 아프요,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디, 어째 그렇게 보냈는지, 멧동³²⁾도 없어라, 보고 싶어도 찾아 갈 멧동(무덤)이 없응께, 더 서럽고 기맥히요.” 라는 술회에서 드러나듯, 자살자=불효자라는 사회적 시선이 늘 따라다녔다. 이렇게 억압당한 애도는 자살자 부모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고 죄의식으로 연결·발전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들의 자살과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아들을 자신이 죽인 것처럼 인식(認識)하였다.

우리사회 자살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매우 빨리 극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하였고 자식의 죽음마저도 슬퍼해서는 안 되는 몰인간적(沒人間的) 사회규칙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흔히 쓰는 위로의 말 중에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힘내세요.” 라는 말이 슬픔 속에 있는 참여자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이러한 말들이 충분한 애도를 억압하는 장치들로 작동하고 있었다.

“막둥이를 바닷가에 뿌리고 온디 환장하겄습디다, 걸어도 걷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지를 태웠던 화장터는 보입디다. 무덤이라도 만들면 한 번씩 가서 야그(이야기)라도 하고 올 것인다....., 위메 생떼같은 자석을 화장한께 한줌 재 밖에 안 되고, 그것을 바닥(바다)에다 훌훌 날려 분께, 가슴이 벌렁벌렁 함실로 별떡증이 나

32) 묘를 일컫는 전라도 사투리

고....., 동네 사람들 없는디로만 땡기고, 아무데서나 울고,
아들 물건들을 냄새 맡다가 하루를 보내고,.....,

애도의 억압은 아들을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죄의식으로 몰아넣었고, 또 다른 죽음으로
달려가게 했다.

3) 체험된 신체성-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신체성(Lived body)은 원초적인 습관으로서 근원적 지각의
매개로 언제나 지각과 운동을 교차시키면서 스스로의 환경세
계를 실천적 영역으로서 구조화 시켜가는 것이다. 인간은 세
상 속에 신체를 통해 존재한다. 의식적인 행동의 기반으로서
언제나 이미 인식되지 않은 채 작용하는 실천적인 습관으로서
의 신체의 존재방식은 현상학적 사실로 드러나는데 신체는 의
미의 원천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³³⁾. 연구 참여자가 아들 죽음
후 체험한 신체성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발견한 순간부터 어머니의 신체는 상실의 고통과 울분
의 상태였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온 몸이 갈기
갈기 찢겨 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울
부짖었으며, 그 방법이 없느냐고 호소하였다. 마치 안데르센
동화 『어머니 이야기』 주인공처럼 아들을 살릴 수 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기를 써 보지만 어찌할 수 없음에 한탄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의 몸은 아프고 병들어 갔으며, 마음은 우울
과 무기력, 죄책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몸과 마음은 죽음
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33) 네이버 지식백과 『현상학사전』, 2011.

〈표3〉 체험된 신체성

신체성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아프고 병들어 가는 육체	식욕부진, 악몽, 호흡곤란, 수면장애, 관절염, 가슴통증, 관절염, 급체, 저혈압
	재앙 같은 마음의 병	죄책감, 절망, 우울, 무기력, 분노, 증오, 불안

1) 아프고 병들어 가는 육체

아들 죽음 후 참여자에게 가장 먼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났다. 온 몸이 쭈시고 아프기 시작했다. 물론 물리적 노화도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규칙성이 무너짐으로 인해 신체적 규칙성과 안전성도 함께 무너져갔다. 잠을 자지 못하였고 소화불량과 급체에 시달렸으며, 관절염 등의 증상이 극심해졌다. 설령 잠을 잤다 하더라도 아들의 시체를 보는 악몽에 시달려 꿈속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 지쳐 일어나기도 했다. 밤·낮 구분 없이 동네 골목, 밭, 논, 바다, 산 등 아들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이면 무작정 찾아다녔다. 꿈과 현실이 없고, 과거와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고, 미래가 없었으며, 의식과 무의식이 뒤 엉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기도 하였다.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참여자는 악몽, 호흡곤란, 가슴통증, 관절염, 저혈압 등의 증상이 극심해지는 등 가슴 속 응어리가 신체의 고통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아프고 병들어 가는 몸으로 하루 하루를 버텼다.

“내가 어떻게 잊었소, 툭툭 붓고 시퍼런 내 새끼를, 그렇게 될 동안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 것인디, 애미인 나는 뭘했을까라, 인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삭신이 다 찢어져도 괜찮으께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 신은 뭘 할께라, 나 안테려가고.....,밤이고 낮이고, 들고 산이고 어디든 가 볼라요. 거기가 지옥이라도 갈라요, 내가 아픈 것은 암 것도 아니어라, 얼마나 힘들었었소”

(2) 재앙 같은 마음의 병

참여자는 신체화 증상에 머물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죄책감, 절망, 우울, 무기력, 분노, 증오, 불안 등과 같은 마음의 재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심리적 증상은 끝없는 죄책감이었다.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행위들이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었고, 생애 과정 마디마디에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있었다.

“돌 때 돌상을 대강 차려서 그랬을까, 그때 실패를 올렸으면 이렇게 일찍 가지는 않았을 것인디....., 초등학교 댕길 땐가 거짓말을 하다 들켰는디 버릇 고친다고 지그 아버지 매를 때렸는디 그래서 그랬을까,”

아들 자살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과 함께 살아 있는 동안 떨칠 수 없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무능력이었다. 자살 결행 전 아들이 보냈던 신호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살아 있을 때

원하던 것을 못하게 한 것이 마치 아들을 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상처 받았을 아들의 가슴속을 치유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대한 회한과 통한이 깊었다. 이는 곧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새벽같이 전화합디다,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 하라고, 일 하지마라고 함실로 지그 아버지 바꿔 준께, 엄마 한테 성질 그만 부리고, 때리지 말고, 아버지도 일 조금만 하고 건강하라고....., 어째 기분이 이상합디다. 우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인디, 내가 그것을 모르고 뭘일이다냐 하고 넘겼지라.”

참여자는 아들이 자살하기 전 다툼이 있었거나 불편했던 사람을 탓하기도 하였다. 용돈을 요구했을 때 호통 친 남편, 생활습관을 지적했던 며느리와 큰 아들 등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아들의 자살을 다른 가족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벌떡증이 도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미운정이 확 달라 듭디다. 용돈 달라고 하니까 잔소리한 남편이 밍고, 같이 살면서 눈칫밥 쫓을 며느리도 밍고, 형이라고 한 마디 했을 큰 아들이 죽인 것 같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 나쁜 년, 내가 죄인이요, 막둥이 죽은 것이 아들· 며느리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한 내가 죄인이요, 이것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4) 체험된 관계성 - “상처와 치유의 과정”

관계성(Lived other)은 대인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 또는 모든 환경과 경험하는 상호성을 관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관계성은 아들 죽음 이후 참여자가 경험한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로 더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와 고통을 은폐하고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아무데도 가지 않는 등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였다. 아들 자살 후 나타난 고립의 본질은 애도의 사회적 억압이 내재된 것으로 아들에 대한 애도를 혼자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고립과 은폐에서 조금씩 나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다.

아들 생전 함께 지냈던 아들의 친구들, 가족(남편 및 다른 자녀들), 원-가족(친정 형제·자매들), 동네 사람들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아주 조금씩 웃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들인 ‘빨리 잊으시오, 힘내시오, 기운 차리시요’ 등과 같은 공감 없는 말들로 상처 받고,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로 부터 위로 받았다. 아들 자살 후 어머니가 체험하는 관계성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었다.

〈표4〉 체험한 관계성

관계성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상처와 치유의 과정	은폐와 고립	기억조차 차단당함 고립된 애도 재경험, 회피, 과각화
	드러내기와 나오기	또 다른 자식들, 형제자매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1) 은폐와 고립

아들 자살 후 참여자가 체험한 관계성의 본질적 주제 중

하나인 ‘은폐와 고립’은 우리사회 자살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부모는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참여자는 가슴에도 기억에도 아들을 묻을 수가 없었다. 아들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과 추측들이 비난으로만 들렸고, 주변의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다. 아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차단당했다. ‘세월이 약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 잊어라.’는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의 위로 말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어지게 했다.

“누가 그렇디다, 오히려 잘 됐다고, 얼른 잊으라고....., 군대도 안 갈라고 요리저리 도망 다니고, 고생해서 돈 모아두면 홀랑 가져가고, 씹질 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평생 웬수라고 잊어 부라고.....그것이 말이요, 그렇게 함부로 남의 자식 죽음을 말하면 쓴 다요, 자살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애미가 새끼를 잊을 수 있다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답례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사람도리를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천수를 누린 호상(好喪)이거나 오랜 지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장례식 과정을 함께 해준 지인들에게 인사치레 하는 것도 일상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참여자는 자살자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없는 죄인이었다.

아들에 대해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는 안되었고, 슬퍼해서도 안되었다. 이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

계를 단절케 하였고, 실제로 혼자서 고립된 애도만 지속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는 만성적 애도 상태(몹시 우울한 상태)에서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어 거기에 흡수되고 사로잡혀 그 이상을 보지도 나아가지도 못했다.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자살한 자식은 불효자라 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 찾아오는 것도 싫고”

아들의 죽음 후 참여자의 일상생활은 이전의 일상생활이 아니었다. 모든 관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들과고만 연결되었다. 과거의 흔적들을 끄집어내어 어딘가에 새기고, 미래는 상상으로만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지 친구들 장개갈 때 우리 아들 생각나고, 아그들 볼 때 마다.....우리 아들도 살았으면 장개도 가고, 지 각시키고 집에도 오고, 지나가는 차만 봐도 우리아들 차 같고, 고만한 사람만 봐도 우리 아들 같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한 참여자는 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다. 아들 죽음과 관련된 유사한 장소나 말을 들으면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떠올렸고, 둘째 아들이 살았던 집이나 근처를 지나는 것도 두려워했으며,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이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과민반응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수면장애와 더

불어 매년 아들의 기일 전·후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물 한 모금 삼키지도 못하는 등 아들의 자살을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고통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어느 날은 나한테 사과합디다 성질부려서 미안하고, 때려서 미안하다고.....저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한대냐 싶고, 어디 가서 조금만 늦어도 자살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내가 죽어야 이것이 끝 나겠다. 뺨에서 안 나오기도 했는디, 쉽게 죽지도 못하고.....,”

(2) 드러내기와 나오기

참여자는 아들 죽음 후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제 2의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위로와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른 관계망을 형성하기도 했다. 종종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과 할 줄 모르던 남편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것도 아들이 준 선물이다’며 이혼 생각을 접기도 하였고, 아들 기일 때마다 찾아온 아들의 친구들이 있어서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련님이 보고 싶다고 옆드려 우는 며느리,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전 생애를 함께 해 온 친정 형제·자매들과의 잦은 교류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에서 조금씩 나오게 하는 매개였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합디다, 나쁜 모습 보여서, 내 속으로는 아들이 주고 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내색은 안 했

제, 이혼 하지 말고 살라는 아들 선물 인 갑다 하고.....며
 느리가 와서 나랑 원 없이 울다가고, 다른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가고,

참여자를 고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중요한 관계는 아들 주변의 사람들이었다. 아들과 나눴던 추억들을 기억해 주는 친구들, 지금까지 인생의 궤를 함께 하고 생애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고 깊은 친정 형제·자매들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방법 또한 아들과 나누었던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그 의미를 기억해주는 것,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기다려 주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아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엄니, 우리 ○○이가 좋아하는 찌개에다 소주한잔 주시오, 진짜 의리 있었어라, 남 어려운 것 모른 척 안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효자였어라 하는디 얼마나 고맙던지”

“언니가 오제, 동생이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좋아하는 호박죽도 끓여주고 바지락 삼아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울면 운대로 지키고 있다가 암 말도 안하고 등만 다독이다 가고 또 오고, 언제부터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디다.”

주목할 점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동네사람들, 지역 사회에서 이해관계와 생존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교환에 관여된 사람들은 ‘은폐와 드러내기’라는 이중적 관계성이 구성되었다. 참여자가 농촌지역 집성촌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점도 있지만 아들 죽음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스러워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소중한 자원이자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다.

“동네 사람들 하고 옛날처럼 지내것소, 웃으면 웃는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살찌면 살찌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디,
그래도 뭘 일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제라”

참여자는 68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아들의 자살만큼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없었다. 아들의 자살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탓하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 자살의 모든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겨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구 시점까지도 참여자에게서는 플래시백, 회피, 과민반응 등과 같은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과 함께 신체화 증상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 생활세계의 시간성은 “멈춰버린 인생”, 공간성은 “사라짐”, 신체성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관계성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네 차원을 포괄하는 것은 ‘암흑 속에서의 빛줄기’였다.

아들 자살 후 참여자의 생활세계는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불가능 했다. 한 작품에서의 표현처럼 “자녀의 자살

상황 자체에 머물거나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 기억 속을 맴돌면서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존재 자체와 공백을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아들이 느꼈던 고통을 같이 느끼고, 매 순간 한 걸음 한걸음 내 디딜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 쉴 때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인 나날”³⁴⁾이었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 또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새롭고 작은 빛줄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생활세계를 은유적으로 이미지화 하면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혼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아이’와 ‘눈물을 비치는 햇살’로 표현할 수 있다. 자살유가족의 어머니는 자녀의 죽음과 같은 죽음 이상의 외상(trauma)을 경험하고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놓여있다. 어머니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어둠 속 공포를 말하게 하고, 그 고통과 슬픔들을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충분히 슬퍼하도록 기다려 주면서 망자와 산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억해 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성인기 아들을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생활세계는 참여자의 생애과정에서 깨어서 꾸는 악몽이자 죽음이상의 충격적인 외상이었고, 떠난 아들과 유착된 몰아적(沒我的) 죄책감을 안고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삶과 죽음을 직면하고 대처해야 하는 일상이었다. 슬픔과 아쉬움, 분노와 억울함, 죄책감과 두려움 등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34) Beverly Cobain & Jean Larch,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이혜선·육성필·김신향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2. 30쪽.

상실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날을 견디고 버티면서 아주 조금씩 슬픔을 어루만지고 다독이면서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통합 주제는 “암흑 속에서 빛줄기 찾기”로 해석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후 노년기 어머니가 경험한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실존체의 네 차원을 Van-Manen의 분석 방법에 따라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³⁵⁾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 생활세계의 시간성은 ‘멈춰버린 인생’, 공간성은 ‘사라짐’, 신체성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몸’, 관계성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통합주제는 “암흑 속에서의 빛줄기 찾기”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어머니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자살 유가족 중 어머니에 대한 접근이 시급하다는 근거들을 당사자를 통해 드러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으며, 자살 유가족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트라우마 증상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가족과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의의를 바탕으로 자살유가족의 자살

35) Max van Manen, 1990.

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자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반응이자 과정이다. 자살이 일어난 후 자살 상황을 온전히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죽음 특히 자살자에 대한 애도를 빨리 떨치는 것을 의연하다거나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참여자의 구술에서도 드러나듯, 서둘러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즉시 화장하기를 원하는 주변 환경 때문에 자살유가족들은 2차 외상을 입기도 하였다. 자살자라고 그의 죽음을 터부시하여 유가족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애도를 억압하는 것은 죽음의 평등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또 다른 자살을 유인할 수 있다.

생활세계는 삶과 죽음의 반복과 연속이기 때문에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자 실체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³⁶⁾ 만남과 헤어짐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적 행위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일이 죽고 사는 삶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애도 방법에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족, 친구, 공동체 등에서 자살자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을 충분히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애도의 시간들을 포함한 관례적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죽음과 애도의 공론화와 죽음에 대한 교육이다. 정규교육 과정에 자살예방교육을 포함

36) 베레나카스트, 『trauma』, 채기화 옮김, 궁리, 2015. 35쪽.

하여 죽음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선 먼저 사회복지·보건·의료, 심리상담·정신건강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평등성에 입각한 충분한 애도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은 죽음에 대한 기존의 가치판단과 인식을 바뀌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방법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사회화일 것이다.

둘째,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자살유가족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어 자녀의 자살시기와 부모의 연령, 이에 따르는 발달과정과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개입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인 자녀 자살을 경험한 노년기의 어머니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고 있었다. 성인기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부모의 경우 자녀 자살의 충격과 노년기의 우울과 고독 등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증폭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부모의 경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녀 자살에 관한 생애사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이야기치료나 생애사 쓰기, 치유자 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이야기 치료를 통해 삶의 과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재통합하게 하고 그 과정이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와 자신의 삶도 분리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 자살을 경험한 부모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개입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거주지의 특성을 감안한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농촌과 해안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일터(갯벌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자살유가족의 분산성과 불예측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관리체계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자원의 양과 질은 단기적 개입 수준이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공적, 비공식적 복지자원을 총동원한 관리와 감시 체계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명지킴이 사업을 구체화·실제화 하는 것이다. 자살유가족 지원팀과 민·관 복지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살유가족 개별사례에 맞게 “○○씨네 생명지킴이들”을 구성하여 각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만남과 정기적인 연락 등의 방법으로 생명지킴이 활동을 공식화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친정형제·자매들, 아들 친구들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주는 의미 있는 타자였고, 동네 사람들은 이중적 관계성으로 나타났다. 자살유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사람들을 “○○씨네 생명지킴이”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넷째, 자살유가족에 대한 생태 체계적 사례관리 모델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사례관리는 먼저 자살유가족 발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중·대형 병원 응급실, 장례식장 등의 기관과 관계자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지역민이 포함된 소규모 단위의 ‘○○지역예방위원회’ 구성하여 자살유가족 발굴을 포함한 예방 및 사후관리 연계망을 지역별로 구체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유가족은 단순히 가족 간

상호작용에 그치지 않고 친구나 동료, 의미 있는 타자들 등의 주변 환경과도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자살유가족 중심 생태 체계적 사례관리 모형이 다차원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공동체성을 활용한 사례관리와 매뉴얼이 필요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복지자원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사례관리 모델과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상에 따라 사례관리 체계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노인들의 경우에는 지역과 가족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사례관리 모형과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이 자녀를 자살로 상실한 노년기 어머니의 경험을 단일사례로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자살유가족 사업 및 자살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이에 필요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득,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4권 4호, 2012, 5-29쪽.
- 김벼리 · 신현균 · 한규석, 「남편을 자살로 잃은 여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 18권 1호, 2013, 191-218쪽.
- 김열규, 『한국인의 화』, 휴머니스트, 2004.
- 김현순 · 김병석,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권 1호, 2007, 23-37쪽.
-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권 1호, 2002, 152-172쪽.
- 박봉길 · 전석균,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권, 2006, 58-90쪽.
- 박지영,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권, 2010, 203-231쪽.
-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 자살실태조사 보고서』, 2013.
- 송성자,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법문사, 2001
- 윤명숙 · 김가득,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

- 험」, 『한국가족복지학회』, 29권, 2010, 115-149쪽.
- 이근무 · 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호, 2010, 109-134쪽.
- Kay Redfied Jamison, 『자살의 이해』, 이문희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04.
- J. William Worden,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이범수 옮김, 해조음, 2009.
- Beverly Cobain & Jean Larch,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이혜선 · 육성필 · 김신향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2.
- 베레나카스, 『trauma』, 채기화 옮김, 궁리, 2015.
- 최연희 · 김수현, 「재가 노인의 우울에 다른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8권 2호, 2008, 345-355쪽.
- 통계청, 『사망원인과 통계결과』, 2013~2014년.
- Amy E. Latham & Holly G. Prigerso, “Suicidality and Bereavement: Complicated Grief as a Psychiatric Disorder Presenting Greatest Risk for Suicidal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 No. 4, 2004, pp. 350-362.
- Ann M. Mitchell, Teresa J. Sakraida, Yookyung Kim, Leann Bullian, & Laurel Chiappetta.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23, No. 1, 2009, pp. 2-10.

- Alex E. Crosby & Jeffrey J. Sacks,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United Stat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2, No. 3, 2002, pp. 321-328.
- Henry J. Carson "Dyads of Father and Son Suicide Separated by Time and Circumstances",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Vol. 31, No. 1, 2010.
- Jacqueline G. Cvinar,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 41, No. 1, 2005, pp. 14-21.
- John Peters, "Bereavement after a Suicide a Survivor's Perspective." *Spirituality and Earth International*, Vol. 7, 2006, pp. 80-87.
-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1998.
- Mark D. Reed & Jason Y. Greenwald, "Survivor victim Status: Attachment and Sudden Death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1, 1991, pp. 385-401.
- Max van Manen, *Researching Live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The Althouse Press. 1990.
- John L. McIntosh & Adina Wroblewski, "Grief Reactions

among Suicide Survivors: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Relationships” , *Death Studies*. Vol. 12, No. 1, 1988, pp. 21-39.

Catherine H. Rogers, Frank J Floyd, Marsha Mailick Seltzer, Jan Greenberg, & Jinkuk Hong, “Long-term Effects of the Death of Child on Parents’ Adjustment in Midlife”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2, No. 2, 2008, pp. 203-211.

Steven E. Bailey, Michael J. Kral & Katherine Dunham, “Survivors of Suicide Do Grieve Differently: Empirical Support for a Common Sense Proposition” ,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Vol. 29, No. 3, 1999, pp. 256-271.

Wolfgang Stroebe, & Henk Schut, “Risk Factor in Bereavement Outcome: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Review” , In Stroebe. M, S., R, O., Hansson, W, Stroebe., and H, Schut (Eds), *Handbook of Research: Consequence,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A Study on the Lived World of a Mother Who Has Lost Her Son to Suicide: Focused on Lived Time, Space, Body, and Relationship

Park, Mijeong

(Sungkyunkwan Univ.),

Han, Sojeong

(Sungkyunkwan Univ.)

The aim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o prevent suicide of a family member; and second, to create a supportive method for them. To do this, researchers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a mother who has lost her son to suicide and analyzed her lived worl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case study method. The researchers explored her lived world with focusing on four views according to Van Manen's analysis method: the lived time, the lived body, the lived space, and the lived relationshi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ived time of the mother's life was 'suspended life at the day', the lived space was 'vanished universe of life', the lived body was 'body running toward death', the lived relationship was 'ongoing process of recovery from emotional injuries'. The

theme integrating these four views was 'a beam of light in the pitch dark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s presented some policies and practical suggestions that could be come into action by the society to help survivors of a family member suicide and to prevent them from killing themselves.

Subject : Social Welfare Practice, Mental Health

Key Words : Suicide of an adult child, Mother Survivor,
Phenomenological Case Study, Lived World of
Survivors